

‘깜깜’해도 100점짜리 절 자신



교리강좌에 참가한 맹인불자들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으며 절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10월 30일 오후 2시,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 법당에는 맹인불자 20여명이 상기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불교기초교리강좌가 시작되는 첫 날, 법사는 1기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김경도(남구자활추진기관장) 포교사다.

맹인불자들은 배움의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법당 맨 앞에는 김복경, 이복열, 서순태 불자 등 70대 어르신들이 앉았고, 뒤에는 정기팔(46), 송재은(44), 김순자(44), 이창영(29) 등 젊은 불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예배를 올린 후 김경도 법사가 “불자라면 예불문은 당연히 외워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예불문 테이블 나눠준데니 불자회(회장 이재달) 법당에는 맹인불자 20여명이 상기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불교기초교리강좌가 시작되는 첫 날, 법사는 1기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김경도(남구자활추진기관장) 포교사다.

맹인불자들은 배움의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법당 맨 앞에는 김복경, 이복열, 서순태 불자 등 70대 어르신들이 앉았고, 뒤에는 정기팔(46), 송재은(44), 김순자(44), 이창영(29) 등 젊은 불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예배를 올린 후 김경도 법사가 “불자라면 예불문은 당연히 외워야 한다”고 입을

대광맹인불자회 2기 기초교리강좌 현장

김경도 법사는 이날 불자들이 절에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예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불자들에게 제대로 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린 깜깜(맹인)이라, 100점 짜리 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모기 눈곱만 클이라도 보이는 사람이 푹바로 절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금순(73) 불자가 어땠게 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느냐며 토를 달았다. 설상가상으로 퇴행성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이남이(71) 불자는 “다리가 아파서 못 한다”며 낙담했다.

그러나 이미 1기 교리강좌를 경험해 본 김경도 법사는 친척하다. 그러곤 차근차근 절하는 법을 설명했다. 김경도 법사의 설명에 따라 합장을 하고 선 맹인불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아한 한 떨기 연꽃같이 마음을 모아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앞드리고 이마를 땅에 댄 후 손을 귀밑까지 올리며 절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할 때 하는 고두배까지 배웠다.

맹인불자들이 김법사의 지시 따라 절을 배우는 동안 불자후원회에서 봉사 나온 도우미 불자들이 일일이 맹인불자들의 자세를 교정했다. 맹인불자들의 3분의 2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라보니 절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는 제대로 절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

청각 2급 장애까지 이중 장애를 겪고 있는 심갑순(62) 불자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반갑기만 하다. 비록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못해 남들 앉을 때 서 있고, 남들 설 때 우두커니 앉아 있기도 하지만 “모르니 가르쳐 달라”고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지난 3월 창립 15년 만에 처음으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한 뒤 지난 10월 30일 2기 불교기초교리강좌를 다시 개설해 맹인불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김경도 법사를 비롯해 김진구(일교, 경산자활추진기관장), 최문성(탄중, 대구경북포교사단장), 김숙란(포교사의 열정이 밀려들었다. 게다가 불자후원회가 매주 맹인불자들을 위한 점심공양후원에 나서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되고 있다. 맹인불자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매주 90분씩 불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예절과 부처님 일대기를 비롯한 다양한 설화 와 교리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대부분 60세 이상... 뜨거운 ‘열정’ 불자후원회, 자세교정·식사제공

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김경도 법사를 비롯해 김진구(일교, 경산자활추진기관장), 최문성(탄중, 대구경북포교사단장), 김숙란(포교사의 열정이 밀려들었다. 게다가 불자후원회가 매주 맹인불자들을 위한 점심공양후원에 나서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되고 있다. 맹인불자회는 앞으로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매주 90분씩 불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예절과 부처님 일대기를 비롯한 다양한 설화 와 교리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글·사진/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목판인쇄 볼수록 신기해!

2006 팔만대장경 축제 3만여 관중 운집

판화작가 전시 및 인쇄체험

2006 팔만대장경축제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경남 합천군 가야면 일대에서 성대히 열렸다.

올해 7회째를 맞은 팔만대장경 축제는 국내 유일의 목판인쇄문화축제로 3만여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우리의 전통목판인쇄문화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졌다. 27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개막식에서는 화려한 축포와 함께 ‘팔만대장경’의 작곡가 김수철씨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고, 29일에는 해인사 스님들과 지역 주민 600여명이 조선 초기(1398년) 강화도에 서 서울 지원사를 거쳐 해인사로 대장경이 옮겨지는 과정을 재현해 장관을 이뤘다.

가야면을 가로지르는 도로 중앙에는 국내 최정상급 판화작가 10명의 야외전시와 시각 전각 와각 작품 초청 전시회가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참가자의 인기를 끈 것은 목판인쇄문화체험여행이었다. 축제참가자들은 나무를 갈라 채취하는 과정부터 나무를 잘라 판을 다듬고 글자를 새겨 판각하는 작



대장경판 이운 재현 모습

업, 한지를 만들고, 한지에 목판을 인쇄하는 인경 작업, 또, 이를 묶어 책으로 만드는 제책과정까지 우리나라의 전통목판인쇄술의 전 과정을 체험하면서 우리민족만이 갖고 있는 높은 장인 정신과 정신문화의 우수성을 느끼고 배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올해는 가야면민들의 생활터전 한 가운데서 해인사와 합천 군민이 하나가 되어 행사를 진행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찾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이다.

현재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돼 있는 팔만대장경축제가 문공부 지정 축제로 승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지선 기자

노인요양원 ‘무량수전’ 개원

영남불교대학 복지재단 노인전문요양원 무량수전이 11월 1일 개원했다.

치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7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무량수전은 한국의 복지향상과 노인복지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구 남구 북덕3동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옆 350여평 부지에 착공해 연면적 740여평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생활실을 비롯해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목욕탕, 자원봉사자실 등의 편의시설을 고루 갖췄다.

1일 개원식에는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스님과 임병현 남구정장을 비롯한 600여명이 동참했다. (053) 471-0991

배지선 기자

대구 불광사 만불보전 낙성

대구 남구 대명2동 불광사 불광불교대학은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만불보전 대법당 낙성식을 봉행한다.

불광사 만불보전 대법당은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1000평 규모로, 250여 대중이 한꺼번에 공양할 수 있는 공양실과 찾집, 합창단 연습실은 물론 다도, 일어, 불화, 수묵화 등을 배울 수 있는 문화교실을 갖췄다.

또, 2층에는地藏전을 3층에는 1250제대 아래를 모신 설법전을 5층에는 시민선



대구시 동구 도동 제현사(주지 법륜)는 불광사 주지 성타, 전 동화사 주지 지성, 관오사 주지 지도,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을 비롯한 지역불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10월 29일 다보탑 제막식 및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대구시 동구 도동 제현사(주지 법륜)는 불광사 주지 성타, 전 동화사 주지 지성, 관오사 주지 지도, 서봉사 주지 경희 스님을 비롯한 지역불자 등 3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10월 29일 다보탑 제막식 및 지장보살 점안식을 봉행했다(사진).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십사일반 마음 내는 삶 살자”

영남불교대 백혈병어린이들이 가을음악회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백혈병 어린이들이 가을 음악회를 10월 29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2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

우학 스님의 선사화 및 선사작 작품 전시회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영남불교대학 동문 불자들의 노래자랑과 댄스, 합창, 패션쇼 공연에 이어 헌집, 배슬기, 한영주, 길건, 송대관 등이 출연하는 “자비로 하나 되는 가을음악회”가 TBC 아나운서 조영구 씨의 사회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우학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백혈병은 좀 어려



워도 완치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니 기뻐가 왔을때 십사일반 마음을 내어 회향하는 삶을 살자”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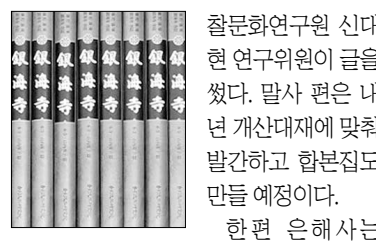
문화유산·인물·기록 총망라

은혜사, 본사·암자편 사지 펴내... 개산 1197돌 맞아

영천 은혜사주지 법타는 개산 1197돌을 맞아 <은혜사지(사지)>를 편찬했다.

총 325페이지 분량의 칼라 도록으로 만들어진 은혜사지는 본사·산내암자 편으로 8장에 걸쳐 민족의 영산 팔공산과 은혜사의 역사는 물론 은혜사를 거쳐 간 역대 선사와 인물, 산내암자, 문화유산과 옛 기록, 현재에 이르는 발자취와 활동까지 세세히 정리되어 있다.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 김상영 교수, 동국대 사학과 한상길 교수, 은혜사 부주지 선광 스님, 은혜사 김기남 사무국장, 사



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이 글을 썼다. 말사 편은 내년 개산대제에 맞춰 발간하고 합본집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은혜사는 손이목 영천 시장, 정희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9일 1197돌 개산대제를 봉행하고 <은혜사지> 고별식을 가졌다.

배지선 기자

제25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상담학 박사 임재형

- 개강** 11월 9일 오전 10시
- 기간** 매주 목요일 6시까지 (7회과정)
- 통신교육**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드립니다(총20개)
-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일 제공
-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 ▶참가비 : 20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격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입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째로 풀어 드립니다.

빙의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대화를 통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소멸하고 현재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명리학성명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회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집정제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키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집중력, 기억력 증강방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회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화법 등

• 전 화 : (042) 255-0734-5
• 주 소 : 대전연정국악원(구)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2층) 대전역에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키버넌트대학교 최면치유학 교수
KBS 무한지대극,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위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강의